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8월 6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8호

1982년 8월 6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희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남편의 위중한 병을 낮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 나 승 희 -

저는 28년 전에 같은 동네에 사는 집사님의 전도로 처음 예배에 참석한 후 변함없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한 은혜와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구역장 직분을 받고 전도의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가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이삿짐 나르는 일을 도와주며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제가 전도한 분들이 교회에 나와 결신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한히 기쁘고 감사했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이 몹시 아팠습니다. 남편이 좀처럼 예배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성품이 착한 남편은 제가 교회중심으로 생활하고 밖으로 전도하러 다니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아이들을 자주 교회로 데려다 주고 또 송구영신예배처럼 늦은 시간에 드리는 예배나 전원성전에서 드리는 신년축복기도회와 같은 성회 때마다 운전기사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김장 준비를 위해 제가 교회에 가서 봉사할 때는 남편이 차로 재료를 운반하는 등의 봉사도 하였습니다.

그 사이 저의 딸 셋과 아들, 저의 네 자녀 모두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되어 우리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큰 딸은 10여 년간 교회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만난 형제와 결혼하여 예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고,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둘째 딸과 막내아들 그리고 늦둥이 선물 막내딸 ‘주안’이까지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학교 중등부에서 교사로 20년 넘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봉사를 쉬거나 빠진 적이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과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학생들과 그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보람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올해 교사세미나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린 학생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

치고 돌보는 일은 하늘에 상급을 쌓는 참으로 고귀한 일”이라고 말씀하며 우리 교사들을 격려해 주셔서 큰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간곡하게 부탁도 하고 충고도 하였지만 여전히 세상 친구들과 세상 일을 좋아하던 남편이 결국 6개월마다 간의 건강상태에 대한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에 병원에서 ‘간의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혹이 생겼고, 크기가 작고 암인지가 확실치 않은데 조직검사를 하고 수술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조직검사 후에는 ‘별거 아니고 수술로 제거만 하면 된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되어 급하게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그 보름 후에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남편이 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떨떨하던 사람이 갑자기 곧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고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이 위중한 상황을 교구장님과 교회의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당회장 조 목사님께서 전화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해주시고 남편에게 신유의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져 그 때부터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고 희망을 가지고 차분하게 상황에 대처하면서 남편을 돌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더 크고 유명한 병원으로 남편을 옮겼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이 자청하여 검사를 받고 적합 판정을 받아 부자간에 간을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 차례의 수술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 회복이 더더욱 남편은 한 달을 응급실 병상에서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과 저녁 하루 두 차례 30분씩 면회하는 시간에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신유를 위한 기도를 남편에게 들려주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교구에서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중간에 호흡 곤란 증상이 나타났을 때와 같은 위기의 순간마다 다행히도 제가 병원에 함께 있었고, 그러므로 그때마다 저는 교구에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이사야 53:5) 아멘!

수술은 잘 되었다는데, 병실로 옮겨서도 회복이 매우 늦어 밥도 못 먹고 걷지도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편이 눈을

뜨면 곧바로 우리 교회 홈페이지의 앱(application)을 통해 당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를 들려주며 믿음으로 화답하게 해주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시편 107:20) 아멘!

수술 후 석 달이 지났을 때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퇴원에 부정적인 주치의 교수님에게 ‘수술은 잘 되었으니,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될 것이다’며 남편을 퇴원시켜달라고 졸랐습니다. 간신히 허락을 얻어 혼자서는 휠체어에 앉지도 못하는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전이어서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예배와 주중예배를 성전 맨 뒤에서 남편은 누워있다시피 휠체어에 의지한 채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교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남편은 마침내 자기 입으로 밥을 먹으며 걸음을 견게 되었고, 지금은 완쾌되어 일터에도 나가서 크게 힘이 들지 않는 일들은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놀라운 신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돌아볼수록 저와 가족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병고를 겪던 남편에게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생활을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이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 405장(나같은 죄인 살리신)을 함께 찬송함에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예배와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예배하며 학생들을 돌보며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시로 성심성의껏 심방과 기도를 해주시는 교역자님들과,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교구와 구역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시편 18:1,2)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라디아서 2:20) 할렐루야!

구역공과 제1권 (제2단원 : 죄지은 인간의 실상) (제8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 본문 : 창세기 19:1-29
- 요절 :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없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없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창 19:29)
- 찬송 : 187장(새찬송가 255장), 190장(새찬송가 258장)

노아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롯의 때에는 죄악의 성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심판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눅 17:26-30).
오늘은 롯의 때에 있었던 소돔 고모라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상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온갖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롯이 괴로워했으며(벧후 2:7),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들림으로 그 진위를 확인코자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셨다고(창 18:20-21)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것처럼 불법을 자행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눅 17:28)라고 하였는데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활 가운데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경건 생활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생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일, 즉 육신의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예배가 없는 인본주의의 생활은 죄악의 온상입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은 잠시 세상에 기웃거리다가도 곧장 회개하고 바로 서기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던 자들의 생활에는 예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2.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심히 중해지자 하나님은 그곳을 멸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사실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소돔 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하여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에 근거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청을 들어주셔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롯은 소돔 성을 멸하려고 온 천사들로부터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창 19:12,13)는 말을 듣고 사위들에게 가서 함께 피신하기를 권유했지만,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들은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창 19:17)고 주의를 주었으나 롯의 아내는 이 말을 듣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소알 성에 안전하게 피한 후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 그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습니다(창 19:23-25).

3.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한 심판이 주는 교훈

첫째로, 소돔 성의 멸망 예고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아브라함의 신앙 자세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소돔 성이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된 성도들의 책임이 막중함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의인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롯의 사위들이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순종치 않다가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당한 일을 기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믿고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주의를 듣고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그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된 것을 거울삼아 우리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연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이 육체의 쾌락을 위해 온갖 불법을 행하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소돔 성의 멸망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에 보내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일지를 알려고 애쓰기보다, 예배 중심의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멸망의 길에 있는 불신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T. 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인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 6 (인창동) T. 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 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로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민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